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슬츠



'독도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몇 년에 한 번씩 사람의 거의 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몇 개의 돌들로 이루어진 이 섬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말하는 '독도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되면 아침으로 먹는 콘푸레이크에서 세탁 세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회사들과 전국의 각 운전자들의 자동차 뒷유리창마저도 독도 수호자로 줄줄이 나선다.

90년 중반부터 한국에 살아온 필자는 이 특별한 시간을 몇 차례 경험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시민들이 격렬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 시간이 도래되곤 한다. 그렇지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걸 좀 더 설명하자면 국내 정치 단체인 정당간의 내부적 문제들이 많은 시기에 이 독도의 시간이 인터넷 팝업창처럼 뜨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친족이 감옥에 가고 그의 몇몇 측근들이 뇌물 수수 및 그 밖의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야당도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럴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조커

는 무엇일까?

웃 소매에서 독도 카드를 들며 시꺼번과 부정과 부패 또는 무능력한 정치가들에 대한 모든 분노를 밖으로 향하게 둘러놓는다. 그리고 독도 카드는 언제쓰더라도 그 힘은 강력하다. 내부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 즉시 국민 모두가 뛰어 들어갈

'독도의 시간'이 다시 한번

수 있는 분노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던 그때 간에 모든 회사들이 나서는 이 전쟁은 "독도는 우리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다 애국심을 부추긴다. 이는 너무나 예측이 가능하고 저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확실히 일본과의 관계는 끊어진다. 일제식민지 이슈도 함께 불거진다.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 요구 등 일본과의 많은 문제들이 수면에 떠오른다.

필자의 개인적 믿음은 한국의 대부분 정치가들이 갖는 최대의 두려움은 아마도 일본이 언젠가 제대로 사과하는 일일 것

이다. 일본이 만약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교과서를 포함한 어떤 책에 그들의 만행을 정당하지 않고 사죄한다면 말이다.

필자의 의견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에 분명 동감하는 한국인들도 있을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사과한다 해도 결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모든 영화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악당이 필요하듯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것이다. 내가 독일인이기에 이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이 정치가들이나 미디어의 이야기에 옮겨 그름에 대한 판단없이 맹복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해 누군가는 솔직해야 한다.

독도 그 주변의 바다는 어획량이 많고 잡재적인 기름과 가스가 숨어 있는 보물 창고다. 이 모두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약 그런 보물이 바다에 없다면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그저 영해를 넓힐 수 있는 한낱 바위섬에 불과하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이 이 무식한 외국인을 죽도록 두들겨 폐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하거나 타임스퀘어 사인보드에 독도 이슈를 올리는 것은 영유권 주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물건의 소유에 대해 큰소리로 싸움이 났다면 구경꾼은 어느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라고 생각할까?

더 큰소리로 말하는 자, 아니면 소리 큰 자? 아니다. 아이들의 싸움을 들여다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의 주장은 무시하는 것이 독도가 한국인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태도는 아닐까? 그렇게 한다면 항상 독도의 시간이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필자의 생각이 한국 정치인에게 그리고 어쩌면 한국인의 정신 전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리아컨설트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윤신

'신뢰의 원칙'과 법의학

개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게 하는가? 그 의문에 대한 필자 스스로의 답은 오늘날의 사회가 윤리적 소양을 더욱 충실히 갖춘 의사 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요구는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을까?

의학윤리에서 강조되는 덕목의 하나는 신뢰이다. 또한 신뢰는 의학전업전문성의 기본 전제이자 핵심 요소가 된다. 설령물을 먹으면서도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약효과(Placebo effect)라고 한다. 비슷한 원리로 믿음직한 의사가 던지는 질병치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통증을 완화해 줄 수도 있으며, 힘든 치료를 견뎌낼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해줄 수 있다.

다시 거기에서의 신뢰의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반대 측에서 주행해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마구잡이로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운전

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진료실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해 다른 병원에서 같은 진료를 반복하기도 하고, 혹은 치료결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수긍하지 못해 낙폭한 소동이 벌어지곤 한다.

반면 의사의는 혹 자신이 그런 상황의 당사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병든 몸을 이끌고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감쪽같이 치료해 줄 믿음직한 의사 찾기 위해 마련이다. 그 마음이 불안할수록 그 믿음직함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렬해진다. 반대로 그러한 기대치의 상승은 진료실의 의사들을 한층 위축시키고 심지어는 방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어느새 의사·환자 간의 신뢰에 애굽야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법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전

문가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이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런 신뢰에 도전이 되는 판결이 있었다.

자신의 만삭 아래 사망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1, 2심 유죄 판결을 거쳐 3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그것이다. 임산부가 순간적인 어지러움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이상자세에 이르러 질식사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부검을 접두한 검사기관이 제시한 사인은 목졸립사였다.

부검결과만으로 범인이 직접 지목되는 경우는 헛기 쉽다. 범인이 있는 죽음(살인, 과실치사인자, 범인 없는 죽음(사고사)인지만 구별해 주는 경우가 더 헛하다. 여기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 고개를 내민다. 왜 그들은 사고성 질식사를 주장하면서 검시기관이 제시한 목졸립사는 애써 부정하고 있는가? 왜 진범을 잡아달라고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범인을 잡아주세요"라고 말해 준다면 좋겠다. 자신이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보내는 안타까운 당부이다.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기고



김성중

미성년자 흡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현행법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만이 처벌 대상일 뿐,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규는 없다. 미성년자의 지도 의무를 암묵적으로 사회(학교, 가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허나 선생과 어른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사회를 통한 자연스러운 미성년자 지도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와 같은 방식을 통한 미성년자 흡연 제지는 이제 설 곳을 잃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득할 수 없다. 전통적 질서를 내세우고, 어른의 권리와 인정받길 강요하며 유파지르는 것은 폭력의 한 형태이다.

폭력은 자연스레 반발과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증오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게 만든다. 어른과 미성년자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진다면 사회를 통한 미성년자 지도는 더욱 묘연해질 뿐이다. 실제로 미성년자 흡연을 제지하려다가

주차장의 외진 곳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장면을 본 순간 솟구친 감정은 당혹감과 분노였다. '아니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이 너석들 보게?' 뭔가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가갔다.

헌데 생각해보면 미성년자의 흡연을 제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담배를 만들고 파는 곳은 준국가기관이다. 담배의 주 소비자는 성인들이다. 성인들은 하면서, 미성년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 흡연은 어른, 아이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다. '어른은 다 컸으니까 괜찮아.'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시비가 불어 폭력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갑작 일어난다. 최근에는 흡연하는 미성년자를 훈계하던 30대가 10대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일마저 일어났다.

사회가 미성년자 흡연을 금기하는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미성년자는 정신,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흡연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장차 우리 사회를 구성할 이들이며 양질의 인적자원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미성년자 흡연을 금기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성구원의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는 취지이다.

그럼 미성년자 흡연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먼저, 미성년자 흡연 규제 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흡연이 적발되면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아무래도 규제 법규가 존재한다면 어른들의 말에 즉각적인 당위성이 부여되어 미성년자를 지도하기가 수월해진다.

둘째로는, 사회전반적인 흡연 경시 풍조

를 형성하는 것이다. 흡연의 폐해를 극명하게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적극 시행하고, 흡연을 미화시키는 모든 매체를 통제해야 한다. 흡연이 스스로를 망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다면 어른의 거울인 미성년자 역시 흡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끝으로, 어른들 각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미성년자 흡연을 예외로 어긋나는 노발행 위로 보고 당혹감과 분노를 먼저 느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이란 상대적이다. 따뜻한 감정과 날선 감정은 그에 걸 맞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 그 주차장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한가?

멋지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할 말이 생각나질 않았다.

'너희들... 그거 몸에 안 좋다.'

아이들은 의외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순히 담배를 끄고 자리를 떴다.

솔직히 많이 긴장했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착한 학생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조선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우기 전기 안전사고 예방 요령 철저히 숙지합니다

시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이 피해 수습책이다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할퀴고 간 광주·전남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특히 태풍을 가장 먼저 접한 광주·전남지역은 위력이 그대로 가져지면서 인명을 비롯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 출하를 앞둔 수산 양식장과 사과·배 등 과수단지는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았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1.8m의 강풍이 물아친 완도 앞바다의 전복 양식장은 쳐집한 광경 그 자체였다.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네모진 양식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쓰레기로 변한 시설물들이 해안가를 뒤덮었다.

상황은 진도, 여수, 고흥 등 남해안 일대가肚리 양식장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양식장 시설은 물面上 2~3년 간 걸려 주식에 내놓을 전복과 우럭 등 수산물을 모두 날벼락처럼 것이다. 과수원도 쓱대밭이 됐다. 전남도내 배와 사과 등 과수단지의 낙과율이 60~80%가 넘는다니 재앙 수준이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접게되면 양식장과 과수단지만도

태풍 예고 속 외유 떠난 김종식 서구청장

더욱 문제인 것은 초대형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각 지자체들이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다. 구청 관계자가 "김 청장의 미국행이 두 달 전부터 계획돼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고작이다. 비상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구청장의 행태가 이 정도라는 게 학습할 때이다. 주민들의 비난과 분노는 당연하다.

김 청장은 이전에도 막말·폭언으로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지난 총선 때 특정 정당 지도부와 행보를 함께하다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등 청장으로서 품위를 잃기도 했다.

일반인이라면 계획된 휴가를 떠난 데 대해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하지만 김 청장은 개인이 이전에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해온 행정을 통해 인정받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당시 태풍 북상 소식에 전국 차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시점이다.

당시 광주시는 강운태 시장이 "모든 관계기관이 사전내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한 후에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전남도도 도지사 지시로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김 청장은 휴가를 떠났으며, 31일까지 현지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지자체 수장이 비상대비 기관과 피해현장을 일일이 쟁기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無等鼓

옛날 중국의 하(夏)나라 계(啓)임금의 아들 태강은 정지를 놓지 않고 사냥만 다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났다. 이에 그의 다섯 형제들은 나라를 빼앗긴 혐의로 노를 빼었다. 그들 노래는 서경(書經)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막내가 불렀다는 노래에 이려 한 대목이 있다.

'만 쌩들이 우리를 원수라 하니... 낮이 뛰어들고 부끄러워지니'이다. 김 청장은 이전에 막말·폭언으로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지난 총선 때 특정 정당 지도부와 행보를 함께하다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등 청장으로서 품위를 잃기도 했다.

이 담화들은 위안부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계승해 온 것이다. 특히 이 발언은 노다 총리가 전날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고 말하고, 마쓰바라 진국가공안위원장이 고노 담화의 수정을 제시한 뒤 나온 발언이다.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문을 끊어고 과거사를 지우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진정 후안무

치한 자(者)들이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퇴행을 주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후안무치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자존과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바로해야 할 때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